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¹ · 봉은주²

¹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Lee, Eun Sook¹ · Bong, Eun Ju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190 nursing colleg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0 to June 12, 2016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9.0.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leadership of the nursing students was 3.49, academic self-efficacy, 3.17,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3.71, and self-directed learning, 3.43, respectively.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leadership($r=.65, p<.001$), academic self-efficacy($r=.61, p<.001$)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r=.36, p<.001$).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GPA 4.0 or above explained 65% of the total variance in self-directed learning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nursing interventions for increasing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dditional studies for changes in the overall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to promote the self-directed learning environment in nurs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Leadership, Self-efficacy, Learning, Nursing stud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교육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의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학습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1]. 자기주도학습은 성인교육의 핵심개념으로 교수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밝히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적용시키며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2]. 자기주도학습의 결과는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주요어: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간호대학생

* 2016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Bong, Eun Ju

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309-2,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3, Korea

Tel: +82-62-231-7362 Fax: +82-62-232-9072 E-mail: b-e-j@hanmail.net

Received: 30 August 2017 Revised: 12 October 2017 Accepted: 12 October 2017

을 터득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생동안 학습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3].

간호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은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직업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하도록 하여 전문직으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보다 강조되고 있다[4,5]. 한국간호교육평가원[6]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졸업 후 2~3년이 지난 시점의 간호사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간호사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여기에는 통합적 간호적용 능력, 핵심기본간호술,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과 협력능력, 윤리적 책임 인식 능력, 리더십능력, 연구능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많은 양의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습득하도록 하는 문제중심학습, 근거중심간호, 사례기반학습,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움직임을 증가시켰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적용의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학습법 적용에 앞서 학습자 개인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는 학습자의 동기적인 측면과 목표달성을 실행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목표 설정과 스스로 동기부여를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 될 수 있다[7].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8], Kim[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은 오히려, 자기효능감 등 다른 변인에 비해 셀프리더십에 높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 교육 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내[10],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nz 와 Manz[11]는 효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셀프리더십 기술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통합적인 구조 틀로 제시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습자의 느낌과 신념에 해당된 것으로[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자 노력하며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 Choi와 Joo[13]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보고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자기주도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자기주도학습은 이러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즉, 자기주도학습은 교수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향상 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기주도학습, 비판적 사고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5],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 등에 미치는 영향[8], 학습스타일이나 시간관리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25] 및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26] 등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나 전공만족도와 같은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과 관련된 특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학습의 환경적 측면인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포함한 요인들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와 같은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를 검증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의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남, 경남 지역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된 전공만족도[5], 성적[5], 진학동기[26]를 포함하여 예측변수를 6개로 하고, 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계산하였을 때 146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편의표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학과의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195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 기재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90명(95%)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도구

1) 셀프리더십

Houghton과 Neck[16]의 셀프리더십 측정도구(RSLQ: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과 Han[1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 중심적 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목표설정 5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관찰 4문항, 자기단서 2문항, 자기처벌 4문항과 건설적 사고전략의 하위영역인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5문항, 자기대화 3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 4문항과 자연적 보상 전략 5문항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Kim과 Han[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Kim과 Park[18]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교수-학생 상호작용

Fisher[19]의 교사-학생관계 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와 Chi와 Kim[20]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Han[2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과 신뢰감의 2개 하위영역으로 총 18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자기주도학습

Lee, Chang, Lee와 Park[22]이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자기주도학습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 평가문항은 총 45문항으로, 세부항목으로 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Chang, Lee와 Park[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 자기주도학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t or χ^2 (p)
Sex	Male	39(20.5)	3.41±0.49	-0.30(.765)
	Female	151(79.5)	3.44±0.44	
School grade	Freshman	42(22.1)	3.34±0.46	2.39(.070)
	Sophomore	81(42.6)	3.52±0.47	
	Junior	29(15.3)	3.32±0.39	
	Senior	38(20.0)	3.43±0.41	
Religion	Have	70(36.8)	3.45±0.45	0.55(.586)
	None	120(63.2)	3.42±0.45	
Motivation for entering nursing department	Aptitude or Interests	76(40.0)	3.59±0.45 ^a	6.35(<.001)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others	46(24.2)	3.27±0.35 ^{ab}	
	Job prospect	59(31.1)	3.39±0.47 ^{ab}	
	Others(High school record ect.)	9(4.8)	3.23±0.39 ^b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ory	11(5.8)	2.99±0.35 ^a	27.88(<.001)
	Usually	60(31.6)	3.18±0.30 ^a	
	Satisfactory	83(43.7)	3.49±0.38 ^b	
	Very Satisfactory	36(18.9)	3.83±0.46 ^c	
Average grade [†]	2.5 ≤ <3.0	14(9.5)	3.27±0.47 ^{ab}	10.01(<.001)
	3.0 ≤ <3.5	46(31.1)	3.24±0.37 ^a	
	3.5 ≤ <4.0	57(38.5)	3.55±0.43 ^{bc}	
	4.0 ≤	31(20.9)	3.70±0.39 ^c	
Primary course after graduation	Clinical nurse	142(74.7)	3.44±0.45	1.26(.289)
	School nurse	8(4.2)	3.50±0.39	
	Occupational health nurse	8(4.2)	3.63±0.41	
	Public health nurse	20(10.6)	3.42±0.37	
	others (enter a graduated school ect.)	12(6.3)	3.20±0.52	

[†]sample size = 148, p<.05 by Duncan test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간호대학생 총 190명 중에서 남학생이 20.5%, 여학생이 79.5%였고, 1학년 22.1%, 2학년 42.6%, 3학년 15.3%, 4학년 20%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63.2%였다. 진학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졸업 후 취업 고려' 31.1%, '주변사람의 권유' 24.2%였으며, 성적 등의 '기타 이유'가 4.8%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보통 31.6%, 불만족 5.8%였고, 성적은 평점 3.5~4.0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고, 2.5~3.0 미만은 9.5%로 응답하였다. 희망진로는 병원간호사 74.7%, 간호직 공무원 10.6%, 보건교사와 산업간호사가 각각 4.2%, 진학 등 기타 6.3%의 순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학

동기, 전공만족도와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학동기의 경우 '적성과 취미가 맞아 진학한 집단'이 '성적 등 기타의 이유로 진학한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의 평균 점수가 높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35, p<.001$).

전공만족도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은 매우 만족 한다 집단(3.83점)과 만족 한다 집단(3.49점), 그리고 불만족(2.99점) 및 보통(3.18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7.88, p<.001$).

성적의 경우 셀프리더십은 평점 4.0이상 집단(3.63점)이 가장 높고, 평점 3.0~3.5미만 집단(3.3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검정상 특정 집단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3.11, p=.028$). 자기주도학습은 평점 4.0이상 집단(3.70점)이 가장 높고, 평점 3.0~3.5미만 집단(3.2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01, p<.001$)(Table 1).

Table 2.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Participants

(N=190)

Category	Min	Max	M±SD
Self-leadership	2.13	4.74	3.49±0.45
Self-goal setting	1.80	5.00	3.46±0.60
Self-reward	1.00	5.00	3.86±0.83
Self-punishment	1.25	5.00	3.45±0.74
Self-observation	2.00	5.00	3.51±0.59
Self-cueing	1.00	5.00	3.73±0.82
Focusing on natural rewards	2.20	5.00	3.41±0.54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1.00	5.00	3.38±0.70
Self-talk	1.00	4.75	3.20±0.72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1.33	5.00	3.45±0.66
Academic self-efficacy	1.81	4.77	3.17±0.49
Task difficulty preference	1.00	4.80	2.78±0.64
Efficacy for self Confidence	2.20	4.90	3.52±0.55
Self-confidence	1.13	5.00	3.20±0.83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2.22	5.00	3.71±0.57
Self-directed learning	2.32	4.61	3.43±0.45
Learning plan	1.95	4.50	3.28±0.50
Learning practice	2.33	4.67	3.55±0.49
Learning evaluation	2.20	4.80	3.47±0.52

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 정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49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이었고, 셀프리더십의 9가지 세부유형 중에서 자기보상(3.86점)이 가장 높았고, 자기대회(3.20점)가 가장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17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이었고, 3가지 세부유형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3.52점)이 가장 높았고, 과제 난이도 선호(2.78점)가 가장 낮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평균 3.71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은 평균 3.4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3가지 세부유형 중에서 학습실행(3.55점)이 가장 높았고, 학습계획(3.28점)이 가장 낮았다(Table 2).

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은 셀프리더십($r=.65, p<.001$)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r=.61, p<.001$)과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교수-학생 상호작용($r=.36, p<.001$)과는 중간수준의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36, p<.001$), 교수-학생 상호

작용($r=.38, p<.001$)과 중간수준의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r=.24, p=.001$). 즉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이 높다고 볼 수 있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Participants

(N=190)

Variables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Self-leadership	1		
Academic self-efficacy	.36(<.001)	1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38(<.001)	.24(.001)	1
Self-directed learning	.65(<.001)	.61(<.001)	.36(<.001)

4.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64~0.80, 분산확대인자(VIF)는 1.25~1.9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변수를 모두 입력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수준 $p<.05$ 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학동기, 전공만족도, 성적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학동기와 성적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점 4.0이상의 성적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F=67.55,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5%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영향 요인으로 가장 결정력이 큰 것은 셀프리더십($\beta=.41, p<.001$)이었고, 다음으로 전공만족도($\beta=.3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5, p<.001$), 평점 4.0이상의 성적($\beta=.10, p=.047$)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으로 포함하여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N=190)

Variables	B	β	t	p
Constant	.50		2.42	.017
Major satisfaction	.19	.34	5.70	<.001
Self-leadership	.41	.41	7.44	<.001
Academic self-efficacy	.25	.25	4.38	<.001
Grade 4.0 ≤ †	.11	.10	2.00	.047
Adjusted R ² = .65		F(p) = 67.55(<.001)		

†dummy variables (academic grade)

이러한 변수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3.49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일반 대학생에게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23]의 연구결과에서 3.4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평균 3.17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24]의 연구에서 3.09점(5점 만점)과 일치하였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평균 3.71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평균 3.43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4,5], [2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성적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학과 전공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가 맞아 진학한 집단'이 '성적 등 기타 이유로 진학한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이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기주도학습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동기적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6]. Kim, Yoo와 Park[26]은 간호대학생의 41.5%가 적성 또는 흥미를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였으며 과반 수 이상인 58.5%는 취업전망이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적성이나 흥미를 이유로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적성과 취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40.0%, 주위의 권유나 취업, 성적에 맞춰 선택한 학생이 60.0%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10명 중 4명만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내재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였으나 6명은 주변의 권유나 취업, 성적 등 외재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동기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집단'이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것은 Cho[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스스로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는 학습능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성적에서는 평점이 4.0 이상인 집단이 3.0~3.5미만인 집단에서 비해 유의한 차이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5]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두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중간정도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셀프리더십,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만족도와 4.0이상의 성적이 65.0%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 중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주도학습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8,9]와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으며, 결국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켜 높은 성과를 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의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많은 양의 지식을 제공받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나 적성과 같은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으며, 전공만족도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5]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 높은 학생을 보다 많이 선발하고 취업이나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고 대학생활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이상의 성적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상위권 성적을 나타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써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경우에 자기주도학습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에 향상되는 것으로 선행연구[24]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Manz 와 Manz[11]는 효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프리더십 기술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셀프리더십 기술을 촉진하는 것은 보다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경험학습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분석, 역할극, 시뮬레이션, 학생들이 서로에게 가르치는 역할에서의 책임감을 지우는 것과 같은 방법은 보다 쉬운 과제에서 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학습 경험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우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자를 촉진자, 상담자로 보며,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27].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최근까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28]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하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촉진자 및 상담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으로, 최근 급격한 간호대학생 정원 증가로 인한 학생 수 증가와 연구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환경 속에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확인되지 못했지만,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자기주도학습과 전혀 무관한 요인으로서 배제하기보다, 자기주도학습의 환경적인 요소로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교과과정을 포함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에 대한 학습동기나 대학생활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Cha와 Kim[29]은 교과외 과정으로 자율적 학습동아리 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자율과 책임이 주어지는 경험학습은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을 촉진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학과의 비교과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에게 일회성의 셀프리더십이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변화를 의미한다. Avdal[30]은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자신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전남과 경남 소재 대학의 일부 간호대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가보고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이들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4.0이상의 상위 성적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교육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Long HB. Resources related to overcoming resistance to self-direction in learning. In Brockett & Hiemstra(eds.). *Overcoming resistance to self-direction in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1994. pp.13-22.
2. Knowles MS. *Self directed learning: a guideline for learners and teacher*. Follett Publishing, Chicago, IL;1975,pp.45-50.
3. O'Shea. Self 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3;43(1):62-88.
4. Oh WO.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5):684-693.
5. Cho HS.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2007;32(2):57-72.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2012.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7. Neck CP, Stewart GW & Manz CC.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95; 31(3):278-302.
8. Lee SY, Kim Y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6;14(3):309-318. <http://dx.doi.org/10.14400/JDC.2016.14.3.309>
9. Kim EJ.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14(2):303-326.
10. Lee KE, Choi E H. Differences of pre-post simulation training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1):66-75.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1.66>
11. Manz CC, Manz KP. Strategies for facilitating self-directed learning : a process for enhan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991;2(1):3-12. <http://dx.doi.org/10.1002/hrdq.3920020103>
12.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86.
13. Choi IS, Joo EJ.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elf-directed learning perceived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10):169-206.
14. Joo HJ.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11(2):237-259.
15. Brookfield S. *The power of critical theory: liberating adult learning and teach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5.
16. Houghton JD & Neck CP.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02;17(8):672-691.
17. Shin YK, Kim MS, Han YS.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6(3):313-340.
18. Kim AY &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01;39(1):95-123.
19. Fisher GL. Comparing writing with interviews and exams as assessment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20. Chi LE. & Kim SS. Comparing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04;20(2):83-101.
21. Han SY.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master's thesis]. Jukjeon:Dankook University;2009.
22.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3.
23. Lee JC.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 ability [dissertation]. Seoul:Chung-Ang University;2013.
24. Lee O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9):6036-6043.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36>
25. Kim IK, Seong JA. Learning style,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 16(7):4621-4631.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21>
26. Kim YJ, Yoo HN, Park MJ.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261-270.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61>
27. Ryan G. Student perception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in a professional course implementing problem-based learning.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993;18(1):53-63.
28. Choi BK, Rhee BS. The influences of student engagement, institutional mission, and cooperative learning climate on the generic competency development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Higher Education*. 2014;67(1):1-18
29. Cha NH, Kim YK. Effects of self study circle activit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659-66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659>
30. Avdal EÜ.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of student nurses on success in Turkey. *Nurse Education Today*. 2013;33:838-841. <http://dx.doi.org/10.1016/j.nedt.2012.02.006>